

## 상무소각장 옮긴다

강운태 광주시장 “2013년까지 ... 구체적 대안은 추후 공개”

### 환경영향 범위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될 듯

환경피해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이 오는 2013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과 가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상무소각장은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운 것으로 임기 내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될 때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팀이 수행한 ‘상무소각장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연구팀에 수정·보완이 가능한 지를 묻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환경복지국과 기후변화대응과에 지시했다. 이에 따

라 상무소각장의 영향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무소각장 이전과 영향권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해당 실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무소각장 이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애초 영향권 반경이 넓어지면서 주민 난방비 지원, 주민센터 건립 등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예산 과다 소요를 우려해 “광주시가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분청 예산 2100억원, 자치구에 산 14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이 부족할 정도이며, 주민지원협의체도 이 같은 점을 이해해줄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초 상무소각장의 영향범위를

300m로 예상한 광주시는 그 범위 내 4개 아파트 단지 2224세대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번 강 시장의 지시로 그 면적은 최대 상무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반경 1.3km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14개 단지 9987세대로 대폭 늘어난다.

임형철 상무소각장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날 “광주시가 지난달 10일 납품된 장 교수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뒤 매일 49만 5000원씩 지체상황금을 물리고 있으며, 이대로 10일이 더 지나면 용역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광주시가 용역 결과의 파장을 우려해 이 같은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희주 환경복지국장은 “상무소각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다ioxin 등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해 이를 보완해달라는 것이며, 다시 한 번 보완을 요청한 뒤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

했다.

그동안 장 교수팀의 용역결과에 대해 광주시가 영향권 범위가 지나치다며 ‘부담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상무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날 강 시장의 지시로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따른 대규모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당면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앞서 옛 도청별관 관련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 시장은 “옛 도청 별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선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수정 설계안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안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도 원탁회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장 바닥에 시민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새기는 것과 금남로 일대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자인 우규승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차마을 해바라기

9일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민개한 해바라기 꽃밭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간인 사찰’ 총리실 사상 첫 압수수색

### 검찰, 보고자료·회의기록 등 확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9일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2면>

검찰이 총리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로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 서버, 전자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서 이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서나 보고자료, 일지, 회의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찰 활동이 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해 업무 분장에 관한 내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남도의장에 이호균 의원 선출

### 부의장 송대수·정환대 의원

제9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재선인 이호균(48·민주당·목포 3선거구·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9일 제 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전체 참석의원 60명 가운데 31표를 획득한 이 의원을 전반기 의장에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는 이 의원을 비롯, 김재무(50·광양 3선거구), 홍익식(52·화순 2) 의원 등 3명이 출마했다.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까지 벌인 끝에 이 의원이 31표를 얻어 최종 승부가 갈렸다.

이 신임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신



회를 받는 의회 역할을 하는데 힘을 쏟는 한편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제8대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목포과 학대 총장을 맡고 있다.

또 이날 부의장에는 3선인 송대수(54·민주당·여수 2 선거구)의원, 재선인 정환대(49·민주당·곡성군 선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원식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주 광주남구 장병완씨 공천

### 국회의원 보선후보, 서울 은평을 장상·인천 계양을 김희갑씨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사진> 호남대 총장을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이 장병완 전 장관을 남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것은 당 기여도보다는 후보의 역량과 광주시민

의 기대치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기여도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무엇보다 광주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장 전 장관을 공천했다”며 “장 전 장관은 광주 발전을 견인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만큼, 남구 지역

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 후보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장상 최고위원을 공천했다. 당초 민주당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신경민 MBC 기자는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 등에 따라 이날 오전 불출마를 선



언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는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과의 한 판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희갑 전 국무총리 정무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대동고를 졸업했다.

충북 충주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는 정기영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 관람시간 (공연 1시간, 오후 4시부터 입장가능)
- 관람료 (초·중·고등학생 1,000원 / 일반인 2,000원)
- 단체 관람에 사전예약필수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